

# 한국 목조건축물의 연대편년에 관한 소고 (韓國 木造建築物의 年代編年에 觀한 小考)

張 憲 德

(靑華大學 建築科 博士課程)

## 목 차

- |                  |               |
|------------------|---------------|
| I. 머리 말          | III. 연대고증의 기준 |
| II. 목조건물의 구조적 특징 | IV. 맺 음 말     |

## I. 머리 말

한반도(韓半島) 목조건축의 시원(始原)은 이미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수혈주거(竪穴住居)에서 출발하여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변화발전 되어왔다. 특히 삼국(三國)이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외래종교(外來宗教)인 불교를 수용하여 전국에는 수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는데 이들 사원 건축의 조영(造營)은 건축문화 발전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전란(戰亂)으로 대부분의 건물들은 소실되어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물들은 고려시대 중기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건물들의 대부분은 일제 때 조사되어 지정당시의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구조적인 특징이나 기법보다는 중수시에 발견된 명문(銘文)등의 기록에 의하여 건물의 초창년대가 추정되었다고 보이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한선(上限線)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목조건물들은 절대년대를 밝혀주는 명문기록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평면적인 특징과 구조적인 기법을 밝혀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 우리보다 고대의 목조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는 중국의 목조건축 기법과 우리 나라 목조건축 기법을 비교하여 우리건축에 남아 있는 고식기법(古式技法)들을 재조명 해보고자 하였다.

## II. 목조건물의(木造建物)의 구조적 특징(構造的 特徵)

목조건축물은 현대건축의 철근콘크리트나 철틀조와 달리 건물을 상·중·하로 나누어 아랫 부분인 기단부, 중간부분인 축부, 그리고 상층부분인 옥개부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들은 세대에 따라 그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건물의 연대 고증에는 여기에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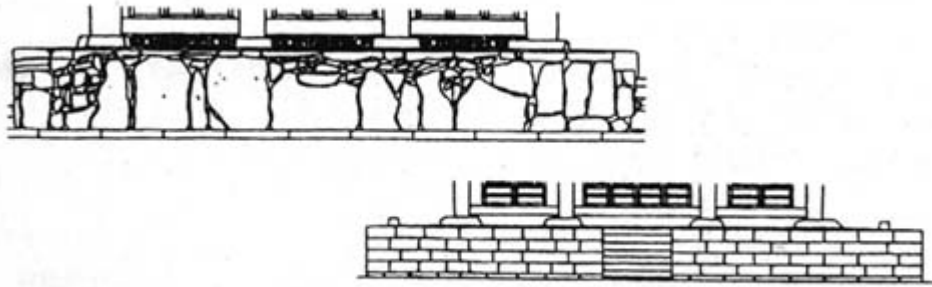
타난 특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 절대년대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목조건축물의 기본구성 요소인 기단과 평면, 가구와 공표, 그리고 실내 공간에 나타나는 의장적인 특징을 찾아 그 기법들을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단부(基壇部)

기단부는 건물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해주는 기초부분을 지하구조물과 지상구조물로 분류가 된다. 지하구조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일정부분을 파내어 판축(版築)과 혼축(混築)등의 독특한 기법으로 지반을 다지고 그 위에 기단부를 구성하게 된다.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기단 지하유구는 황토와 모래를 섞은 판축층의 유구로 알려져 있다.

이들 지하유구 위에 짜은 기단은 재료에 따라 와적기단(瓦積基壇), 전축기단(塼築基壇), 화강석기단(花崗石基壇)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와적기단과 전축기단 유구는 옛 백제지역의 일부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기단유구는 화강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강석의 기단유구는 단의 구성 방법에 의하여 단층기단(單層基壇)과 중층기단(重層基壇)으로 구분이 되며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석재의 결구방식에 따라 가구식기단과 장대석기단, 자연석기단으로 구분이 되어진다.(圖面 1). 지금까지 확인된 가구식기단은 거의가 삼국시대 유구로 면석과 면석사이에는 작은 기둥을 세워 면석을 결구하였고 이들 면석에는 때때로 화려한 문양을 조각하여 그 위에 갑석을 올려 우아한 기단을 조성하였다. 이들 가구식 기단은 거의가 평지나 구릉지 사찰에서 보이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도면 1. 自然石基壇과 長台石基壇

圖面 1. 자연석기단(自然石基壇)과 장대석기단(長台石基壇)

장대석기단은 고려시대의 궁궐인 만월대 등 조선시대의 궁궐과 양반가옥, 민가, 사찰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가구식기단에 비하여 가공과 시공이 편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석기단은 산지사찰 등 일반서민 민가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가공이 필요없고 누구나 손쉽게 쌓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단에 짜여진 계단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구식 기단에 놓이는 계단은 이들 양측에 놓이는 소맷돌이 대부분 별석으로 놓이게 되는데 소맷돌이 기단의 갑석에서부터 지대석 머리끝까지 경사지게 내려오는 수법과 지대

석 끝에서 약 30cm정도 안쪽에서 결구되어 그 앞머리에는 구멍을 뚫어 기둥을 세웠던 수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이러한 결구법은 미륵사지 등 옛 백제지방에서 보이는 수법이고 후자의 이러한 수법은 황룡사지, 감은사지 등 옛 신라지방에서 보이는 수법이다. 그런데 전자의 이러한 수법은 일본(日本) 나라지역(奈良地域)의 건물지 계단(階段)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찾을 수 있어 기록에 보이는 백제장인들의 일본교류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지대석 앞면에 기둥이 놓이는 수법은 불국사 다보탑의 기단부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수법은 신라시대에 유행한 하나의 기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대석 기단이 짜아진 건물에서는 이미 이러한 기법이 생략되어 계단의 우석(隅石)이 1매석으로 변하면서 백제식의 우석 결구수법보다는 신라식의 우석 결구수법으로 변해 우석머리 부분에 꽃였던 기둥은 생략되고 평평한 면으로 남게된다. 그리고 자연석기단이 짜여진 경우의 건물계단은 우석이 생략되어 몇 개의 큰 자연석을 덩성덩성 놓아 단지 오름계단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게 된다.

기단 위에 놓이는 초석은 상부의 하중을 지면에 전달해주는 완충부재인 동시에 여기에 나타난 조각수법은 때로 건물의 연대를 판정해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들 초석은 다듬는 정도에 따라 가공초석(加工礎石)과 자연초석(自然礎石)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공초석은 그 형태에 따라 원형초석과 방형초석, 그 높낮이에 따라 평초석(平礎石)과 장초석(長礎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유적에서 방형초석과 장초석은 옛백제 지역인 부여와 공주, 익산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원형초석은 경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 이들 초석의 윗면은 쇠시리하여 주좌를 조각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연초석은 기둥의 아랫면을 돌의 요철(凹凸)에 맞추어 그랭이질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많은 건물에서 이들 수법을 볼 수 있어 이들 그랭이 수법은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하나의 수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목조건축 문화권역에 속해 있는 중국은 이때 이미 목조건축 시공의 표준시방서라고 할 수 있는 「영조법식(營造法式)」의 규범이 있어 이들 초석에는 연화문(蓮花文)과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등이 화려하게 새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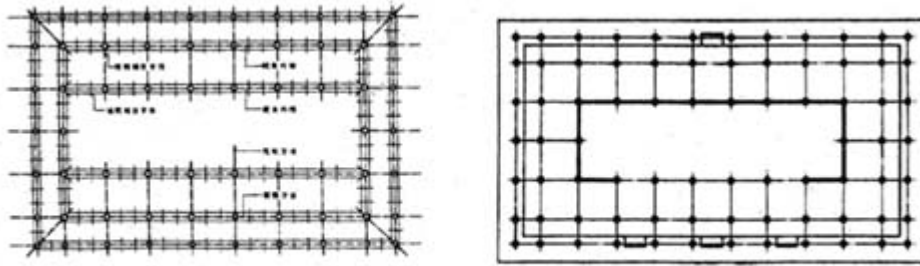
## 2. 평 면(平 面)

기단위에 놓인 건물의 평면은 초석의 배열 간격에 의하여 간광(間廣)이 정해지게 되고 결국 간광(間廣)은 건물의 평면규모와 상부가구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 평면과 가구 체계에 관하여 중국은 이미 송(宋) 「영조법식(營造法式)」에서 그 기본적인 도양(圖樣)을 제시하였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의 「영조법식(營造法式)」이나 「공정주법(工程做法)」과 같은 고대의 건축 기술전문서적이 전해져오지 않아 건물이 평면과 가구구조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황룡사지등 많은 건물지 유구와 「삼국사기(三國史記)」 옥사조(屋舍條)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영조법식(營造法式)」에 버금가는 정확한 법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식이 기록으로 전해오지 않아 양식사 정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같은 목조건축 문화권을 유지하여 온 중국의 「영조법식(營造法式)」을 비교연구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영조법식(營造法式)」에서는 먼저 건물의 기본적인 4개 평면

형태를 도시(圖示)하였다.<sup>1)</sup> 그리고 이들 평면은 먼저 주열의 배치에 따라 외조(外朝)와 내조(內槽)<sup>2)</sup>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면은 이미 발굴 조사된 당대(當代)의 많은 건물지 유구와 현존하는 당대(當代) 불광사(佛光寺) 대전(大殿)에도 나타나 선행(先行)되었던 제도를 송대(宋代)에 와서 규범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건물과 비교되는 우리 나라 건물지로는 신라의 거찰 황룡사 중금당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건물은 신라(新羅) 선덕여왕(善德女王) 14년(645) 신라의 삼보(三寶)였던 황룡사(皇龍寺) 목탑(木塔)이 중건되기 전에 건립되었던 가람의 본전이다. 중금당이 평면규모는 「영조법식(營造法式)」에서 정한 건물의 등급제도로 보면 일등급(一等級)인데 정면이 11이다. 그리고 기단아래에는 1열의 초석을 배치하여 차양(遮陽)을 둔 평면에서 단지 건물의 정면 칸수만 2칸이 더 큰 경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금당의 동쪽에 놓인 1차 동금당은 정면 7칸, 측면 6칸의 부계(차양)가 있는 건물로 「영조법식(營造法式)」에서 정한 등제 개념으로 본다면 2등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각지반전신칠간부계주폐각량가연신내금상두저조(殿閣地盤殿身七間副階周幣各兩架椽身內金箱斗底槽)<sup>3)</sup> 와 변화가 거의 없는 동일한 규모이다(圖面 2)



도면 2 營造法式上的 平面과 皇龍寺中 金堂平面

圖面 2. 영조법식상의(營造法式上) 평면(平面)과 황룡사중(皇龍寺中) 금당평면(金堂平面)

또한 분황사의 중건 금당 가량은 발굴조사보고서의 적심석에 따라 건물의 규모를 정면 7칸, 측면 6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의 평면 역시 매우 고식 평면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제시(日帝時) 발굴조사(發掘調査)된 천군리사지(千軍里寺址)는 통일신라시대 건물지로 발굴조사자는 이 사지에 사용된 척도를 당척(29.64cm)으로 보아 금당지의 도리칸은 32척으로 어간(御間) 12척, 협간(夾間) 각 10척으로 보았고 보칸은 20척으로 가간은 10척이라고 하였다.<sup>3)</sup> 그러나 내진주(內陣柱)에 관한 기술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주망(柱網)의 배치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 건물에서 보여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은 이후 중·소규모의 사찰본당에서 매우 많이 사용된 기본칸수가 되었

1) “殿閣地盤殿身七間副階周幣身內單槽”, “殿閣地盤殿身七間副階周幣身內雙槽”, “殿閣身地盤九間身內分心料底槽”, “殿閣地盤殿身七間副階周幣各兩架椽身內金箱斗底槽”

2) 외조와 내조는 우리나라 건축용어의 외진주열과 내진주열에 해당한다. 장경호 박사는 이것을 바깥줄기둥과 안줄기둥으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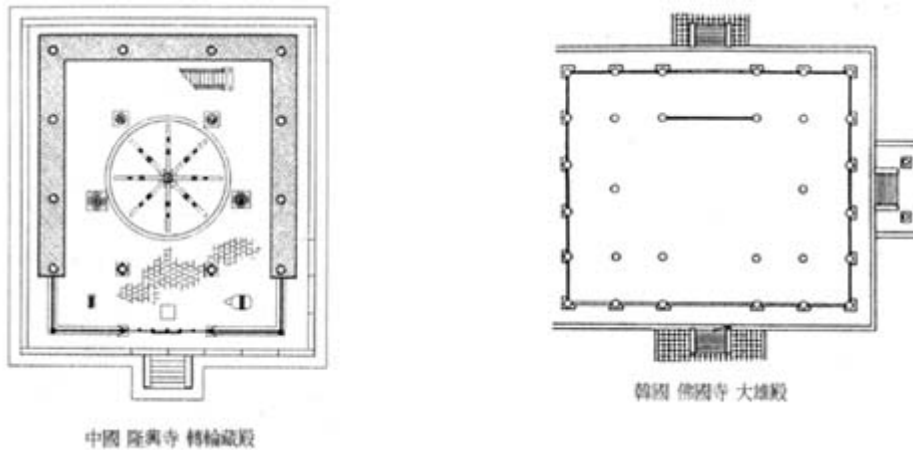
3) 〈慶州 千軍里寺址 及 三層石塔調査報告〉, 昭和十三年度,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五年, 六月(昭和一年은 1926年임)

는데 측면과 정면의 비는 1:16이다.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창건되었다가 폐허(廢墟)된 또 하나의 사찰로 감은사지(感恩寺址)를 들 수 있다. 이 사찰의 금당(金堂)의 규모는 정면 5칸으로 어칸과 협칸은 각각 3,510mm이고 마지막 협칸을 2,490mm로 산정(算定)되어 도리칸은 15,510mm이고 측면3칸은 9,070mm로 어칸 4,110mm, 협칸 2480mm이다. 신내(身內)에는 사방으로 내조(內槽)가 있고 모두 기둥이 배치되었다. 측면과 정면은 1:1.71의 비를 나타낸다.

또 1929년 등도해치랑(藤島亥治浪)에 의해 발굴 조사된 사천왕사지 역시 통일신라시대 전후의 사찰로 금당의 규모는 정면 5칸으로 어칸(명간(明間))과 협칸(차간(次間)) 마지막 협칸(양진간(兩盡間))은 모두 12尺으로 정면의 전장(全長)은 60척이다. 측면은 3칸으로 38척인데 명간(明間)은 차간(次間)에 비해 조금 크다. 측면과 정면은 1:1.578의 비를 나타낸다.

불국사는 신라 법흥왕대(法興王代)에 창건되어 진흥왕대(眞興王代)에 증창되었고 석조물은景德왕대(景德王代)(742~746) 김대성(金大成)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 절은 임진왜란때 거의 全燒되었다가 조선 영조(英祖)41년(1765)에 대웅전이 증창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여왔는데 1967년부터 시작된 불국사정화공사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경내의 중심공간에 위치한 대웅전의 기단과 계단 초석은 창건당시의 유구를 그대로 보존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물의 평면에서는 지금까지 정연한 배치를 보여오던 초석의 배열이 중간부분에서 2개가 감소하였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요(遼)·송대(宋代)로 내려오면 기둥배치 방법에 변화가 일어나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배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둥의 위치가 변해가는 소위 “이두법(二料法)”과 감두법(減料法)이 보이기 시작한다(圖面 3). 이러한 이두법(二料法)과 감두법(減料法)은 상부구조의 결구체계에도 변형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기대 해볼 만하다.



圖面 3. 이두법(二料法)과 감두법(減料法) 평면(平面)

### 3. 기 등

우리 나라 건물에 사용된 기등은 그 단면의 형태에 따라 네모기등과 등근기등, 팔각형기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들 기등에 나타난 기등의 곡선에 따라 배흘림기등과 민흘림 기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이전의 목조건축에서는 배흘림기등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포작이 증가되고 주가포작이 놓이는 건물에서는 민흘림 기등의 기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등과 그 위에 놓이는 포작의 관계는 건물의 의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건물의 연대고증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들 건물에 나타나는 귀솟음 수법과 안쓸림 수법은 선인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 놓은 정확한 기술축적의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4. 가구부(架構部)

우리 나라의 목조건축에서 건축의 가구를 기술하면 도리의 숫자와 기등의 높낮이로 건물의 뼈대를 설명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고대건축(古代建築)의 가구를 논할 때 항상 평면(平面)과 기등 위에 짜아지는 가구를 연계하여 전당식(殿堂式)<sup>4)</sup>과 청당식(廳堂式)<sup>5)</sup>으로 크게 나누고 또 이것과 병행(並行)하여 가구(架構)의 결구별(結構別)로 대량식(大樑式)<sup>6)</sup>, 천두식(穿斗式), 정간식(井干式)으로 나누고 있다.

중국건축에서 이들 분류방식(分類方式)은 대다수(大多數)의 건물에 적용(適用)되어 가

4) 殿堂式 : 중국 고대 건축군에서 가장 으뜸되는 건축이라 말할 수 있으며 殿과 堂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殿은 宮室과 禮制, 宗教建築에 널리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堂과 殿의 개념은 이미 周代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堂이 먼저 나타난다. 堂의 원래 뜻은 실내와 상반되는 概念으로 건물 앞쪽에 외부로 터진 공간을 지칭하였다. 그리고 다의 좌우로는 배치순서가 있었는데 양쪽으로 방을 두고 또 걸채를 두었다. 이러한 한채의 건축군을 통칭해서 당이라고 하였는데 天子, 諸侯, 士大夫가 거처하였던 곳이다.

殿은 堂보다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데 원래는 뒤쪽이 높은 것을 뜻하고 건축물에서 그 형체가 높고 위치가 명확하였다. 이러한 堂과 殿이 한채의 건축에서 함께 쓰이기 시작한 것은 秦始皇이 축조한 감천의 前殿과 아방궁 前殿이었다. 이렇게 堂과 殿은 2자가 함께 통용된 적도 있었지만 후대에 와서 등제의 차별이 생겼다.

하나의 건물에서 전과 당은 모두 건물입구의 오름 계단, 몸체, 지붕의 3부분이 있다. 그중 오름계단과 지붕의 형식은 중국건축에서 明確한 특징이 있다. 봉건 등급제도의 제약에서 전과 당은 형식, 구조상에서 모두 구별이 있다. 전과 당은 건물 입구의 오름 계단에서 비교적 일찍 구별이 있었다. 당은 오직 섬돌만 있고 전은 섬돌 뿐만 아니라 또 계단이 있고 원래의 계단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는 하나의 높다란 기단이 있고 큰 장대석으로 상하를 연결하였다. 때문에 전은 가능하게 臺와 건축의 발전중에서 나타난 건축명칭이다. 또 전과 당은 지붕의 형식면에서도 구별이 있는데 唐代에 이미 전의 지붕은 우진각지붕으로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내외주가 동일하게 때문에 포작층을 가질 수 있고 부계가 있다. 또한 대량과 퇴량을 가진다.

5) 廳堂式 : 전당식과 확실히 구별되는 것은 내부기등의 차이에 있다. 즉 내주는 처마기등에 비해 높다. 대량(乳楹)과 우미량(扎牽)의 뒤쪽은 기등에 끼웠는데 기등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수평층을 이룰 수 없었다.

영조법식의 등급에 의하면 이러한 건축은 중소형의 건축에 이용되었다. 중국 영파의 보국사 대전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건물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대량인데 포작층이 없어짐으로서 대량의 구조가 특히 발달되었다고 보아진다.

6) 대량식구조 : 중국에서 대량식의 목가구는 이미 춘추시대에 완성되었으며 그후에도 계속 발전하여 하나의 완전한 작법이 되었다. 기등 위에는 보를 설치하고 다시 그 위에는 여러 개의 작은 기등과 부재를 혼용하여 한 조의 목구조를 이루게 된다. 평행한 두 개의 목구조 사이에는 횡으로 된 방을 사용하여 기등의 상단에 연결함으로써 여러 형태의 목구조를 이루게 된다.

구(架構)의 결구(結構)와 지역적(地域的)인 특성(特性)을 그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두식(穿斗式) 목구조(木構造)는 남부지방(南部地方)에서 보편적(普遍的)으로 채용(採用)되고 있어 북부지방(北部地方)에서 많이 채용된 대량식(大樑式) 목구조(木構造)와 대비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중국 고건물의 분류 기준이므로 우리의 목조건물과 비교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건축기술전문서적이 없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기에 고대로부터 우리와 빈번한 교류가 있어 왔던 중국의 여러 가지 법식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비교하여 찾아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기록을 통해 볼 때 삼국은 중국대륙(中國大陸)과 빈번(頻繁)한 교류가 있었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 이후에는 신라의 수많은 승려(僧侶)와 사신(使臣)들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 등지에서 유학(留學)을 마치고 귀국하였는데 이러한 인적교류는 당시 선진화된 당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이는 가교적(架橋的)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평면에서 기술한 황룡사 금당 등의 건물 평면은 중국고식 건물평면 규모를 잘 보여주고 있어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황룡사 금당과 같은 거대한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당대(當代)최고의 건축기술이 도입되었을 것이며 아무리 숙련(熟練)된 아버지(阿非知)라 할지라도 건물을 짓는 기본법식이 없었다면 이런 규모의 건축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당과의 인적교류과정에서 얻어진 축적된 고급기술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던 고구려(高句麗)는 당(唐)과 수많은 교류(交流)가 있었지만 고구려(高句麗) 벽화(壁畵) 고분(古墳)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두공(料栱)은 고구려 고분에서만 보이는 독창적인 형태로 당시의 목조건축 기술을 잘 반영하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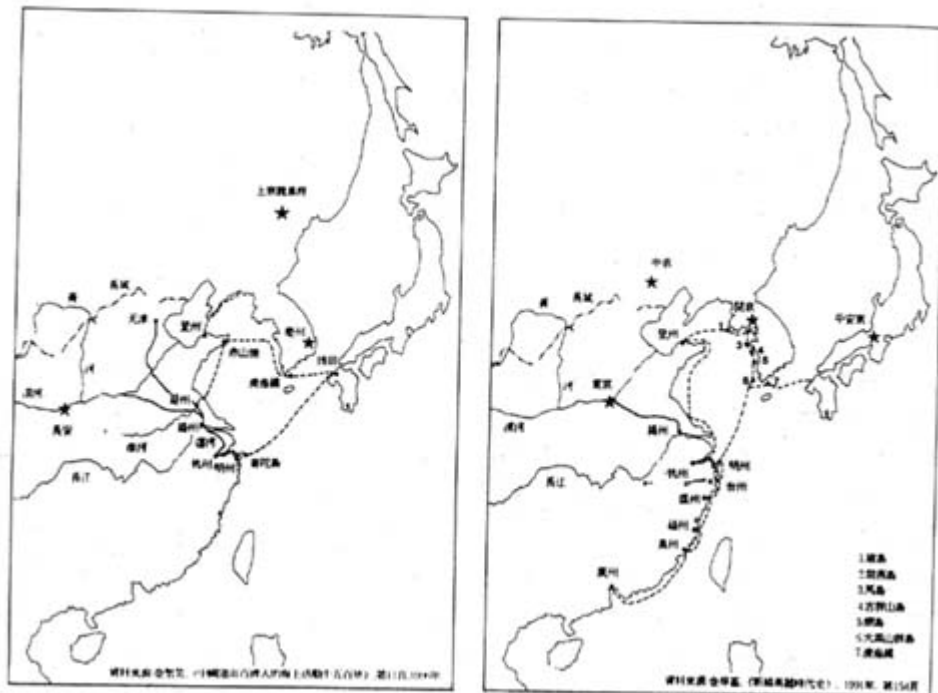
7세기 중반에 이르면 삼국은 대당외교를 선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육로보다는 보다 빠른 해로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대륙과의 교류(交流)가 육로보다는 보다 빠른 해로(海路)를 통(通)하게 되었다. 당과의 외교노력에 성공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점차 해상무역을 발달시켰다.

그래서 당시 중국대륙의 신라인 거주지역은 “수도권 이외에도 남으로는 대운하·회수 유역의 내륙지대와 북으로는 중국의 연해안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연안지대를 따라 집단적으로 정주하고 있었다. 특히 초주(楚州)(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준안현(淮安縣))와 서주(西州)(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준양도(淮揚道))에는 신라인의 집단거류지인 이른바 신라방(新羅坊)이 있었고, 산둥반도의 연안지대인 등주(登州) 문등현(文登縣) 청녕향(淸寧鄉)의 적산촌(赤山村)이나 동(同) 모평현(牟平縣)의 유산포(乳山浦)와 소산촌(邵山村)에는 신라인의 집락이 있었던 점이다.”<sup>7)</sup>

9세기말 당(唐)이 망하고 송(宋)이 건립되면서 한반도 역시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 신라가 멸망되고 고려가 건국되었다. 그러나 고려(高麗)는 북송(北宋)과 남송(南宋)과의 교류(交流)는 여전하여 많은 사신들이 왕래하였고 특히 민간무역을 발달하였다. 이때는 복건성(福建省) 천주항(泉州港)에서 바로 북상(北上)하여 해안을 따라 황해를 거쳐 먼저 명주(明州)(금일(今日)의 절강성(浙江省) Ningbo)에 도달할 수 있었다. 복건 상인과 고려 무역은 성행(盛行)하여 고려 왕성(王城)(금일(今日)의 개성(開城))에는 수백명의 내화상인(來華商人)들이 있었다. 북송(北宋) 시기의 항주 지방관인 소식(蘇軾)은 『논고

7) 李基東 <長保阜와 그의 海上王國> [長保阜의 新研究], 社團法人 莞島文化院, 1985, 10, 106쪽.

려진봉상(論高麗進奉狀)』에서 천주(泉州)에는 많은 고려인이 왕래하여 물건을 매매(賣買)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북송(北宋) 철종(哲宗) 원우사년(元祐四年)(서기(西紀) 1089年) 고려사신 수개일행(壽介一行)이 천주해상(泉州海上)을 거쳐 항주(杭州)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식(蘇軾)은 수계 등을 명주(明州)까지 환송(歡送)한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는 복건지방(福建地方)과 고려(高麗)간에 상업활동이 매우 빈번(頻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때에는 송(宋)의 보건지방과 일본간(日本間)에도 무역(貿易)이 성행(盛行)하여 신종(神宗) 희녕(熙寧) 원년(元年)(서기 1068년)에는 복주(福州)의 상인(商人)이 일본에 간 기록이 있고 일본 상인 또한 복건(福建)으로 와서 상업 활동을 한 기록이 있다.(圖面 4).<sup>8)</sup>



圖面 4. 중한해상교류도(中韓海上交流圖) 한동수박사학위논문(韓東洙博士學位論文)에서 전재(轉載)

그리고 송(宋) 휘종(徽宗)5년(1123) 송(宋)의 사신으로 개성에서 1개월을 머문뒤 귀국하여 개성 부근(附近)의 건축을 기술(記述)한 서궁(徐兢)은 『고려도경(高麗圖經)』을 지어 휘종(徽宗)에게 헌상하였다. 이 책은 모두 28문으로 나누고 다시 3백항으로 세분(細分)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먼저 글로써 설명하고 그림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126년 금(金)나라가 송(宋)의 수도(首都)를 함락(陷落)시킬 때 그 정본(正本)은 없어지고 지금은 그림부분은 없는 부분(副本)만 전하여 온다.<sup>9)</sup>

그리고 고려(高麗)는 충렬왕(忠烈王) 3년(1276)에 원(元)의 공장(工匠)을 초빙하여 궁궐양식(宮闕樣式)을 본받아서 개성(開城)에 수녕궁(壽寧宮)을 짓고 본궐(本闕)로 삼았다

8) 唐文基, 『福建古代經濟史』, 福建教育出版社, 1995, 363~398쪽

9) 國譯, 『高麗圖經』, 財團法人, 民族文化推進會, 韓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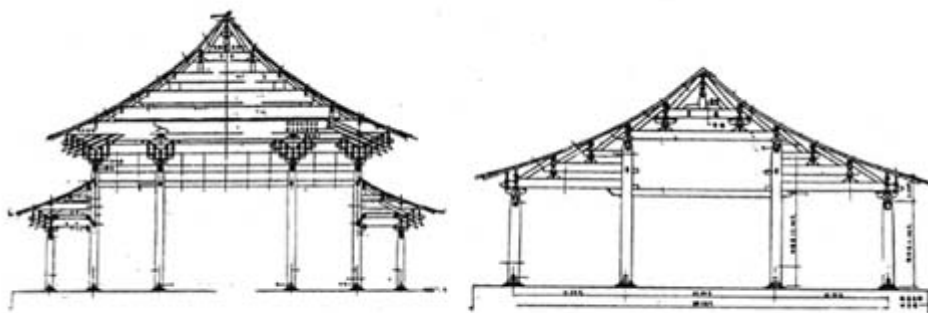
는 기록이 있는데<sup>10)</sup> 당시의 공장(工匠)의 규모 등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역사적인 이러한 교류과정에서 한반도에 전해오는 일부 사찰건물에는 중국의 남·북방지역에서 보이는 여러 건축기법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조법식에서 규정한 등제개념을 놓고 볼 때 규모가 비교적 큰 건물인 황룡사의 금당 등에서는 전당형식(殿堂形式)의 건물평면을 보이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건물은 모두 청당형식(廳堂形式)으로 나타나 한반도의 건축에서도 [영조법식(營造法式)]의 등제(等制)와 같은 기준(基準)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推定)하게 된다. 아울러 현존하는 고려말 조선초의 목조건물에서 건물의 규모에 따라 적용된 부재의 단면 치수가 상대적(相對的)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事實)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나라 건물에도 기준법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남아 있는 고려말(高麗末) 건물(建物)중의 수덕사(修德寺) 대웅전(大雄殿), 성불사(成佛寺) 극락전(極樂殿), 무위사(無爲寺) 극락전(極樂殿), 강릉(江陵) 객사문(客舍門) 등의 세부장식(細部裝飾)에서는 중국(中國) 남방지역인 절강성(浙江省)과 복건성(福建省)에서 보이는 세부(細部) 건축적(建築的)인 요소들을 볼 수 있어 이들 건축에 대한 비교연구는 한·중건축사의 교류를 밝혀주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고식 목결구 수법인 차주조(叉柱造) 수법(手法)은 우리 나라 목가구 결구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영정주(永定柱) 수법의 변형이 많다. 그러나 우리 나라 중층 가구결구 수법에서 평주(平柱)와 고주(高柱) 사이를 퇴량으로 연결하고 그 위에 상층기둥을 놓는 수법은 한층 더 발전된 기둥배치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방의 모퉁이에 서 45. 방향으로 컷보를 걸치고 우주(宇柱)를 놓았는데 이러한 수법은 중국건축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우리 건축의 하나의 특징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구의 짜임에서 중국건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측면의 중앙간을 기준으로 서까래의 길이가 정해지고 이 서까래가 단면의 가구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몇 개의 서까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측면 길이가 정해지게 된다. 반면 우리 나라 건물의 지붕은 단지 장연(長椽)과 단연(短椽)만으로 지붕을 구성하게 되어 건물의 측면이 길어질 때 그 각도에 따른 지붕의 체적이 많고 아울러 상대적으로 추녀의 길이도 길어지게 된다고 생각된다(圖面 5).



도면 5. 宋式 架構 殿堂形과 廳堂形比較

圖面 5. 송식(宋式) 가구(架構) 전당형(殿堂形)과 청당형비교(廳堂形比較)

10) 한국의 건축, 윤장섭, 280쪽.

## 5. 공포부(栱包部)

기둥과 지붕의 완충공간인 공포대는 지붕의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해주는 구조적인 역할 이외에 건물의 외관을 장엄하고 웅장하게 처리하기 위한 장식적인 요소도 겸하였다. 아울러 이 공포대는 실내에서 천장의 구성방식<sup>11)</sup>과도 관계가 있어 여기에 나타난 장인의 세련된 조형적 감각과 의장적인 요소는 건물의 시대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 목조건축의 양식편년은 거의가 이 공포<sup>12)</sup>의 짜임 형식에 따라 주심포양식, 다포양식, 익공양식으로 대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양식의 분류마저도 때로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목구조형식의 초기분류가 우리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제 때 일본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한국의 목조건축을 일본건축의 시각으로 본 잘못된 개념의 도입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 건축연구의 제1단계는 시대구분이라는 양식상의 문제해결에 있고 이 문제는 절대년대를 아는 개개건축의 특징을 비교, 정리하여 분류하는데 있다. 특히 목조건축에 있어서는 고려말 조선초에 걸쳐 더욱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시의 건축이 남아 있고 거기에 고려시대에 들어온 남송과 북송계의 양식상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양식을 소위 천축양(天竺樣), 당양(唐樣)이라 명명하였고 또는 제1형식, 제2형식이라고도 하고 마바라구미양식(疎組樣式)이니 쓰메구미양식(詰組樣式)이니 하기도 하였다. 이들 명칭은 지금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주심포계 건축과 다포계 건축을 일컫는 말로서 남송계통의 천축양식을 천축양, 북송계통의 건축양식을 당양이라 하였다. 이렇게 우리 나라 건축에 그와 같은 명칭을 붙인 것은 일본건축에 사용되던 명칭을 그대로 한국건축에 인용하였던 까닭이다. 천축은 인도를 뜻하고 당은 중국을 뜻하는 말이긴 하나, 건축의 양식구분에서 이와같은 용어를 우리나라 건축에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할 언젠스다. 일본에서는 요즈음 천축양이니 당양이니 하는 용어대신 대불양(大佛樣), 선종양(禪宗樣)이라는 용어로 개명되어 불려진다. 대불양은 일본의 가마구라시대(鎌倉時代)로부터 무로마찌시대(室町時代)에 걸쳐 새로운 건축양식이 중국으로부터 들어 올 때 일본의 승려인 중원(重源)이 나라(奈良) 동대사 대불전의 재건에 그 양식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대불양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고 그 후 다시 들어온 양식, 즉 당양(唐樣)은 선종교(禪宗敎)와 함께 전래된 양식이라 하여 선종양(禪宗樣)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두 양식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양식을 자기들의 양식이라는 뜻으로 화양(和樣)이라 부르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그들의 명칭을 따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 요즈음 주로 사용되는 이들 두 양식의 명칭은 주심포 양식과 다포계 양식이다. 이것은 결국 공포의 배치 형식을 외형상 분류한 것으로 주심포계 양식은 공포

11) 室內에서 이 공포대의 높이에 따라 공포대와 천장 결구부분에서 意匠도 달라진다고 보이는데 특히 빗천장과 우물천장일 때 그 짜임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12) 우리나라에서는 公布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일본에서는 組物, 중국에서는 料栱이라고 부르는데 두공은 料와 栱의 합성어로 건물과 수평방향으로 짜여지는 料인 柱頭, 柱心小累, 邊小累(櫓料 交互料, 散料 濟心料)와 추목소침차, 출목대침차, 행공침차(泥道栱, 慢栱, 令栱)이다.

栱은 수직방향으로 짜아지는 출목살미, 상양, 하양(華栱, 上昂, 下昂)을 가리켜 우리보다는 그 명칭이 세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공포라고 부르는 명칭은 宋 [營造法式]의 개념으로 보면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 기둥이 있는 위에만 배치한 건물의 형식이고 다포계 양식은 기둥 위 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한 건물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sup>13)</sup>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목조건물의 포작수(包作數) 산정방법(算定方法)은 중국과 비교해 볼때 건물 수평방향(水平方向)에 놓인 횡공(橫栱)인 첨차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청대(淸代)에 발간된 [공정주법(工程做法)] 상의 횡공부재인 정심과공(正心瓜栱), 외예과공(外拽瓜栱), 정심만공(正心万栱), 상공(廂栱)의 부재를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개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중국건축에 있어 송식건축과 청식건축은 건물이 지어진 시기가 다르고 구조의 기본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청식구조의 기본개념을 우리 나라 라말선초의 목조건물에 적용하면 시기적으로도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포작수를 산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송(宋) [영조법식]의 기본개념은 건물에 사용된 부재를 “재(材)”라는 기본단면을 기준으로 분(分)으로 산정하여 그 비율을 3:2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재”의 크기를 건물의 평면 규모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였다. 따라서 같은 “재(材)”라 할지라도 건물의 규모와 목수가 사용하는 척도에 따라 절대값인 분(分)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어있다.

둘째, 포작의 산정은 우리가 산정하는 건물 수평방향의 첨차수가 아니라 기둥 위에서 포작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주두와 처마아래에서 이들 포작이 고정될 수 있도록 지탱하고 있는 부재도 포작수에 산정이 된다. 따라서 포작의 산정은 주두에서부터 도리밑의 단면부재까지를 포함하여 “재(材)”가 쌓아지는 부재수(部材數)에 따라 포작수가 결정되어 1출목일 때는 4포작이 된다.

셋째, 송식포작의 기본구성은 건물수평방향 부재인 첨차보다 수직방향인 살미가 강조되어 짜아졌기 때문에 수직방향성이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기 중국의 많은 건물에서 하양부재가 사용되었고 길게 나온 처마를 받치는 의장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넷째, 이 시기 하양을 사용한 건물의 포작 구성은 대부분 아랫단에 수직방향이 강조된 교두형 첨차로 살미가 구성되고 그 위에 하양이 결구되는 보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대로 내려오면 첨차 출목살미 위에 횡공의 첨차가 결구되고 宋(宋) [영조법식(營造法式)]에서는 이들 결구구조를 투심조(偷心造)<sup>14)</sup>와 계심조(計心造)<sup>15)</sup>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청대(淸代)에 발간된 [공정주법(工程做法)]은 단면부재 산정을 두구(斗口)를 기준으로 하여 11등급으로 나누고 건물의 규모에 따른 부재의 단면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두구는 주두의 수장폭을 지칭하고 있다.

13) 金東縣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인, 1996, 47~50쪽.

14) 투심조는 전투심조와 투심조로 나누는데 전투심조는 주심에만 첨차가 짜아지고 출목간에 첨차가 놓이지 않는 구조를 말하고 투심조는 주심뿐만 아니라 외목도리하부에 첨차가 놓이는 보다 발전된 구조를 말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나라 봉정사 극락전은 전투심조 구조를 보여주는 고식의 기법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석사무량수전에서는 외목도리하부에 소위 말하는 행공첨차가 하나 놓여 있어 포작의 발전 단계로 보면 봉정사극락전보다 발전된 구조인 투심조이다.

15) 계심조는 포작의 결구방법에 따라 단공조와 중공조로 나누는데 단공조는 출목살미간에 횡방향의 첨차가 하나만 놓여 그 위에 一斗三升의 소로를 놓아 외목도리를 받치는 경우이다. 그리고 중공조는 각 출목살미위에 소첨과 대첨이 겹쳐서 짜아지는 구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다포계건축의 포작짜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송식건축(宋式建築)과 청식건축(淸式建築)은 목구조의 결구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식건축의 구조개념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 건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기준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목구조 분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우리나라 목조건물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주심포와 다포, 익공등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양식의 분류는 그 구조적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특히 주심포와 익공을 분류함에 있어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건축서적이 없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목조건축의 요소들을 추정하여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목조건축물을 분류해 보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단지 포작이 짜여진 발전단계의 개략적인 연구에 한정하였다.

기둥 위에 포작이 짜여진 제일 간단한 형태의 공포는 살미가 생략되고 첩차 위에 바로 소로를 놓아 도리를 받치는 구조이다. 실제 이러한 형태의 고대 건물은 전해오지 않지만 중국의 한대 석궐이나 수·당대의 석굴 등에서 많은 실례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탑의 1층탑신 위에서도 이러한 단공조의 공포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圖面 6).



도면 6. 單拱造와 重拱造의 比較

圖面 6. 단공조(單公造)와 중공조(重公造)의 비교(比較)

그리고 살미가 외부로 돌출하는 포작구조는 수당대에 조성된 둔황석굴의 벽화와 당나라 의덕태자 묘 현실에 그려진 포작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묘사된 각종 두공의 형태는 현존하는 당대(唐代) 건물인 남선사 대전과 불광사 대전의 공포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대동의 운강석굴에서는 고구려고분에서 나타나는 많은 장식적인 요소가 보이고 있는데 북송대에는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결과도 주목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각종 공포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들 공포도를 분석해보면 거의가 출목살미에 첩차가 놓이지 않는 투심조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벽화에는 중국의 벽화에 묘사된 공포처럼 하양구조의 공포를 짜고있는 예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고구려 지역의 고대 건물에서는 하양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첩차의 형태는 거의가 교두형을 이루어 장식성이 배제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첩차는 남선사 대전과 불광사 대전에서도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 목조건물의 공포는 첨차와 살미의 형태가 교두형으로 된 것과 수덕사대웅전 공포와 같이 살미의 끝이 길게 빠져 나온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들 형식을 크게 나누어 백제계의 주심포 형식과 신라계의 주심포 형식으로 나누는 학설도 있다.”<sup>16)</sup>

이는 고려시대 건축에서 신라문화권의 내륙지역과 백제문화권의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이 서로 다른 형식의 공포와 가구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현상과 유사하고 고구려계나 북방계의 영향을 받은 신라의 공포형식이 경주권역을 중심으로 고려 주심포계 건물로 연결되고 다시 조선시대의 무앙계(無昂系) 공포형식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sup>17)</sup>. 그리고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남방적 요소가 보이는 헛첨차와 앙(昂)을 사용한 주심포가 고려 주심포계로 이어지고 다시 조선시대의 쇄서와 앙서로 나타난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공포의 형태는 하대로 내려오면서 서로 융합되어 한국적인 공포의 형태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나라 목조건축의 양식분류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포작의 결구방법에 따른 기법들도 아울러 조사되어 건물의 절대년대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고려시대 건물들을 청대(清代)의 공정주법(工程做法) 방식으로 포작수(包作數)를 산정(算定)하게 되면 봉정사(鳳停寺) 극락전(極樂殿)이나 부석사무량수전(浮石寺無量壽殿) 등과 같은 건물은 포작 산정방법(算定方法) 해석상(解析上)에 많은 논란(論難)의 여지(餘地)가 있다.

그리고 수덕사대웅전(修德寺大雄殿), 부석사조사당(浮石寺祖師堂)에서와 같이 헛첨차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포작 해석(解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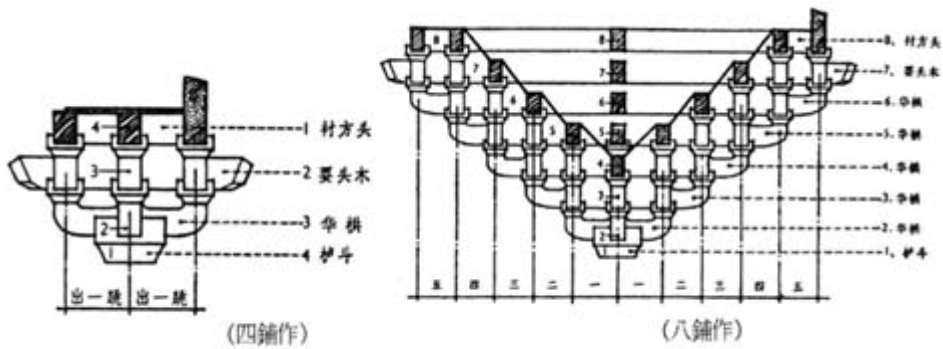
또한 두공(料栱)의 위치로 포작을 나누면 익공형식(翼工形式)은 기둥 위에만 포작이 짜여지기 되므로 소위 말하는 주심포(柱心包)와 구별(區別)에 혼란(混亂)을 일으키게 되어 익공(翼工)의 정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송(宋) [영조법식(營造法式)]에서는 출목살미로만 짜여진 공포를 투심조(偷心造)라 하였고 출목살미 위에 첨차가 놓이는 경우를 계심조라 하였는데 1출목한 공포를 사포작(四鋪作)으로 보고있다.(圖面 7).<sup>18)</sup>

16) 張慶浩 [昌山 金正基 博士 華甲記念論文集], <料心包形式的 再考>, 昌山金正基博士 華甲記念論文叢刊行委員會, 1990, 3.

17) 張憲德, 裴秉宜 [韓國의 高建築 第13號],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12, 95쪽.

18) 四鋪作은 비록 출목살미가 한번 빠져 나왔지만 鋪作을 構成하는 기본적인 부재인 櫨料, 要頭, 襯方頭의 3부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四鋪作이다. 이것은 포작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에서 모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부제들이다. 왜냐하면 제일아랫층의 櫨料가 없다면 하나의 鋪作 받침을 구성할 수 없고 要頭가 없으면 제일위의 橫栱인 楹栱의 정확한 위치를 고정시킬 수 없다. 또한 襯方頭가 없으면 椽檐方의 위치를 고정할 수 없는데 楹栱과 椽檐方은 모두 要頭와 襯方頭에 의해 결구되어진다. 때문에 하나의 포작은 출목수에 3을 더하여만 포작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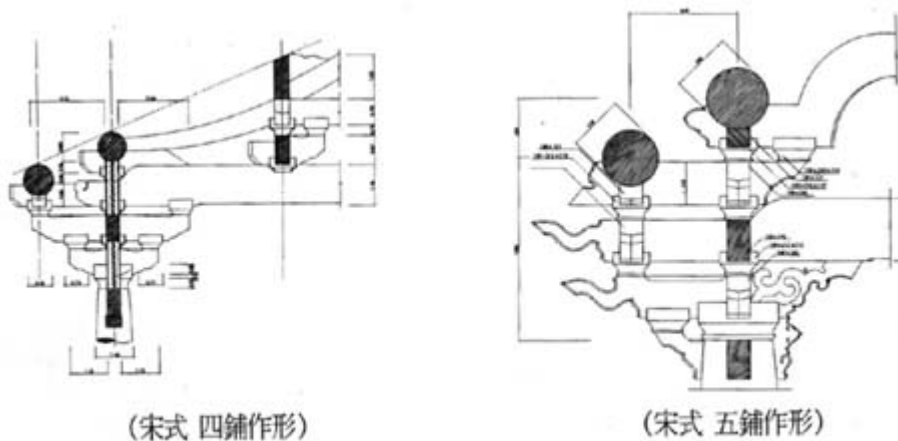
도면 7. 宋式의 鋪作算定方法

圖面 7. 송식(宋式)의 포작산정방법(鋪作算定方法)

이러한 구조적 개념으로 보면 봉정사극락전은 4포작의 공포로 구성되었고 부석사 무량수전은 5포작의 공포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헛침차를 가진 수덕사대웅전이나 부석사 조사당과 같은 건물은 宋(송) [영조법식(營造法式)] 에서도 서술되지 않았고 실제 이러한 유형의 포작 구성은 중국의 남쪽지방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방적인 요소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지방의 건축기술서인 [영조법원(營造法源)] 에서는 이러한 헛침차(포혜두(蒲鞋頭))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포작개념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구조적인 특징으로 미루어 보면 출목살미가 단지 주두 아래에서 빠져 나왔다는 기법상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들 기준에 의하면 수덕사대웅전은 헛침차를 가진 5포작의 건물로 볼 수 있고 부석사 조사당은 헛침차를 가진 4포작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정된 지면때문에 다음 기회의 논문으로 미룬다.

다만 주심포와 다포의 개념은 그 포작이 놓이는 위치뿐만 아니라 그 포작이 짜아지는 결구방법에 대해서 계심조와 같은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도면 8. 韓國 高麗末의 料拱

圖面 8. 한국(韓國) 고구려(高句麗)의 두공(料拱)

### Ⅲ. 맺 음 말

이상에서 간단하게 우리 나라 목조건축물의 시대 판정과 관련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찾아 보았는데 그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기단과 계단은 석조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에 보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창건당시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여 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건물의 연대판정에는 기단부의 세부 기법 등도 충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2. 건물의 평면은 상부의 가구결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대에 따른 건물의 평면적인 비례가 고려되어야 하고 초석과 기둥에서 보이는 의장적인 요소들도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가구는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기둥과 대들보의 결구수법, 보와 도리의 결구방법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되어야 한다.

4. 공포의 결구수법과 그 의장적(意匠的)인 수법은 건물의 연대 판단(判斷)에 중요(重要)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영조법식(營造法式)] 과 [공정주법(工程做法)] 을 통해서 볼 때 현재 우리 나라에서 분류하고 있는 포작수(包作數)의 산정방법(算定方法)은 건물의 수평방향(水平方向)에 놓인 침차(檐遮)를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청대(清代)의 [공정주법(工程做法)]방식으로 고려시대 목조건물 포작을 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여기에 대하여는 심도(深度)있는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5. 명문(銘文)에 의하여 고려시대 후반 건물로 분류하고 있는 봉정사 극락전 등의 몇 동 건물은 장식부재인 인자대공, 화반대공, 창방머리 등 많은 부재들의 세부기법도 시대에 따른 분류가 진행되어 건물의 연대 판정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